## 01. Swift 로 iOS 코딩하기 - Swift Tour

Swift 로 iOS 코딩을 하려면 우선 XCode 를 설치해야 합니다.

https://itunes.apple.com/us/app/xcode/id497799835?ls=1&mt=12

링크를 열면 AppStore 가 열리고 XCode 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ac AppStore 에서 XCode 를 검색해서 찾아도 되겠네요.

다운로드를 마치고 처음 실행하면 해 볼 수 있는 것중 하나가 Playground 입니다. XCode 는 프로젝트를 열지 않고도 Playground 를 통해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New Playground 를 선택하여 여러 코드들을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Playground 별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니 강좌에서는 초반 여러 코드를 Playground 를 이용하여 실행해 볼 것입니다.

먼저 XCode 의 메뉴 File->New->Playground 를 통해 Playground 를 엽니다. 이름 및 저장 위치를 지정해 주면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Hello World 부터 해보죠

print("Hello, World")

라고 입력합니다. 우측 결과창에 Hello, World 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
Ready | Today at 오후 2:40

| Control of the control
```

Playground 는 이와 같이 실행 결과를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간단한 코드를 테스트해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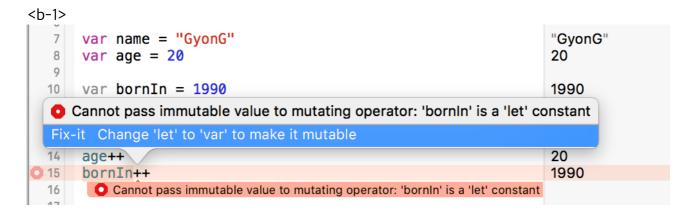
Swift 에서는 변수 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라면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수, 변경할 수 없으면 상수 라는 표현을 쓰는데, Swift 에서는 다른 언어라면 변수로 선언해서 쓸 만한 값들도 상수로 선언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분을 Mutable 변수와 Immutable 변수 로 구분하고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Swift book 에서는 상수(constant)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따르기로 합니다.

변수 및 상수 선언을 위해서는 var 와 let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합니다.

<b>

```
7  var name = "GyonG"
8  var age = 20
10  let bornIn = 1990
11   age++
12  age++
14  Cannot pass immutable value to mutating operator: 'bornIn' is a 'let' constant
"GyonG"
20
```

위의 값들 중 name 과 age 는 변수 (variable) 이고 bornIn 은 상수 (constant) 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같은데, 변수는 그 값이 변화될 수 있고 (mutable) 상수는 그 값이 변하지 않는 (immutable) 경우 사용합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서의 상수는 컴파일 시점에 값이 결정되는 것을 상수라고 하는 반면 Swift 에서는 값 선언 시점에 결정되어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을 상수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위 예제에서 name 이나 age 는 다른 값을 가리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age++에서와 같이 그 값을 1 증가시키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bornIn 은 let 으로 선언된 상수이므로 값을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인 넘버 왼쪽의 빨간 동그라미를 눌러 보면 XCode 가 가끔 자동고침 Fix-it 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래 <b-1>에서는 ++을 할거면 let 을 쓰지 말고 var 를 쓰는 것이 어뜨냐고 제안을 하는 군요. 라인 10 의 let 도 var 로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Objective-C 로 iOS 코딩을 해 본 사람은 Foundation 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인 NSString 과 NSMutableString, NSArray 와 NSMutableArray, NSDictionary 와 NSMutableDictionary 등의 구분에 대해 익숙할 것입니다. iOS/OSX 에서는 이와 같은 구별을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이것이 프로그램의 안 정성이나 Multi-thread (혹은 multi-core) 처리에 유리하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Swift 가 제안되면서 이와 같은 구분이 모든 type 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 나 java 같이 type strict 한 언어들은 변수/상수를 선언할 때 반드시 type 과 함께 적도록 합니다. Javascript 같이 그렇지 않은 언어들은 type 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Swift 는 type strict 하지 않은 언 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wift 는 어떤 언어보다도 type strict 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죠

이게 Javascript 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코드입니다. 하지만 Swift 컴파일러는 에러를 냅니다. name 이라는 녀석은 string type 으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Int 값인 12 를 담을 수 없어서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아주 "type-strict" 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찌 type 을 쓰지 않을까요?

사실은 위의 코드는 아래처럼 쓰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
var name:String = "GyonG"

name = 12
Cannot assign a value of type 'Int' to a value of type 'String'
"GyonG"
```

name 이라는 변수를 String 타입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 과 함께 type 을 적습니다. 이것은 변수 선언의 var 와 상수 선언의 let 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Swift 에는 Type-Inference 라는 것이 있어서, 컴파일러가 무슨 타입인지 알아낼 수 있으면 생략해도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 <c-1> 코드에서 name 에 "GyonG"을 대입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것이 문자열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것의 타입을 생략해 주어도 컴파일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Type inference 를 이용하여 type 을 생략할 때는 프로그래머와 컴파일러가 모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코드를 보죠

```
var seconds = 3.3
seconds = 4

var value = 10
value = 4.2
Cannot assign a value of type 'Double' to a value of type 'Int'
```

seconds 는 3.3 을 대입한 것으로 보아 컴파일러는 이것이 Double 타입인 것으로 추측하여 선언합니다. 여기에 다시 4 라는 Int 값을 넣는 것은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conversion)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value 로 선언된 변수는 10을 대입한 것으로 컴파일러는 이것이 Int 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 11 라인의 4.2 즉 Double 값을 대입하는 것은 에러로 처리합니다. 만일 value 의 초기값이 10인 Double 타입이기를 원하면 10 라인의 코드를 100 라인의 코드를 100 이라고 하거나 100 이라고 하거나 100 이라고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100 이라고 하거나 100 이라고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100 이라고 하기나 100 이라고 하기나 100 이라고 해주어야 합니다.

```
var value1 = 10.0
var value2:Double = 10
value1

value1

value1

value1

value1
```

변수/상수 혹은 mutable/immutable 구분이 처음이신 분들은 언제 var 를 써야 하고 언제 let 을 써야 하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값의 선언을 let 으로 하시면 됩니다. 컴파일러가 다음과 같은 에러를 내면 그 선언부를 let 에서 var 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
<e-1>
14
         override func viewDidLoad() {
 15
              super.viewDidLoad()
              // Do any additional setup after loading the view, typically from a
 16
                 nib.
<u>A</u> 17
              var value = "Hello";
 18
              label.text = value; A Variable 'value' was never mutated; consider changing to 'let' constant
 19
20
         }
<e-2>
            override func viewDidLoad() {
  14
  15
                  super.viewDidLoad()
                 // Do any additional setup after loading the view,
  16
 17
                  let value = "Hello";
                  labe text = value:
  18
   Variable 'value' was never mutated; consider changing to 'let' constant
   Fix-it Replace "var" with "let"
```

<e-1> 에서는 원래 var 로 선언했지만 <e-2> 의 Fix-it 이 let 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Swift 2.0 부터는 var 로 선언해 놓고 값을 변경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warning 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확실히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면 let 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Swift 에서는 값을 출력하기 위한 함수인 print 계열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보통은 new-line 을 포함하는 print() 함수 형태로 사용합니다. Console 에 출력을 하는 것이므로 iOS App 을 만들 때는 log 를 확인 하는 정도로 사용하겠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라면 standard-output 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rint 계열 함수들은 그 argument 가 다양한 type 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문자열 형태로 바꾸어서 출력하는 것이 보기에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
5 let pi = 3.14
6 let msg = "value of π is \((pi)\)"
7 print(msg)
3.14
"value of π is 3.14"
"value of π is 3.14\n"
```

위와 같이 문자열 중간에 escape 를 해서 변수 값을 넣을 수 있는 기법을 Interpolation 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Perl 같은 언어에서 이런 interpolation 을 지원하곤 하죠. Swift 에서도 \( 와 ) 를 문자열 중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Playground 에서는 6라인과 7라인의 우측에 모두 그 문자열이 출력되었는데, 이는 Playground 는 print 계열 함수가 아니더라도 값이 대입되기만 해도 그 값을 출력해주는 기능때문입니다. 이 interpolation 이 사용될 때 \( 와 ) 사이에는 아무 expression 이나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식이나 함수 호출 등이 사용되어도 무방합니다.

<h>>

```
1 let apples = 3
2 let oranges = 5
3 let appleSummary = "I have \(apples) apples."
4 let fruitSummary = "I have \(apples + oranges) pieces of fruit."
```

첫시간은 이정도로 마쳐 보기로 할까요? 각자 위에 보여드린 예제 외에 여러 가지들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